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⑩

부처님 법장 받아지녀야 큰 지혜 얻어

安住首楞嚴定 則是普現色身三昧 普入十方佛土 教化眾生 嚴淨一切佛刹 供養十方諸佛 受持一切諸佛法藏 具足一切諸行波羅密 悟入大菩薩位 則與普賢 文殊為其等侶
수습업정에 안주하는 것이 보현색신삼매이다.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에 보편하게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불국토를 장엄 청정하게 하며 시방제불에게 공양을 올린 일체제불의 법장을 받아 지니고 일체바라밀을 빠짐없이 만족하게 실천하여 대보살의 지위에 깨달아 들어간다면 보현 문수와 하나로 평등하게 짝을 이루게 된다.

앞에서 지관으로 열불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여래행을 행하는 것이고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 열불삼매를 성취하는데 이르러서는 최초일념 무명을 타파하여 그 이치를 증득했다. 그런 뒤에 수습업정에 안주하게 된다.

범어로 수습업은 건상분별(健相分別)이라고 번역한다. 이는 보살이 능엄삼매에 안주하면 일체삼매의 활동하는 모습의 맑고 깊고 얇은 이 모든 차별을 다 분별하고 명료하게 안다는 뜻이다.

또 수습업정을 견고불괴(堅固不壞)라고 한다. 이 선정에 안주하면 일체 사된 마군의 뇌란이 삼매를 파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크게 자유자재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보현색신삼매(普賢色身三昧)로부터 이어지는 문장은 근본정(根本定)을 따라서 위대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현은 마치 천상에 하나의 달이 모든 강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를 두고 "모든 강에 물이 있으면 모든 강에 달 그림자가 있고, 만 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 리가 한 색의 하늘이다"라고 하였다.

보살이 이 삼매에 안주하면 일체 세계가 한 마음속에서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 신통보유이 종횡무진으로 자유자재하여 전후의 시간차가 없이 동시에 모든 법계에 감응하여 색상이 원연하기 때문에 보현이라고 말한다.

이런 마치 관음보살의 삼십이응신이 중생의 몸을 따라서 나타나 설법을 하는 경우와도 같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세계의 일체제불 국토가운데 보편하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 불국토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다.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큰 복덕을 얻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받아 지니 커다란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복과 지혜의 두 가지 장엄으로 열반과안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모든 바라밀을 실천한다고

신 받아 해탈을 빠짐없이 갖추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묘덕이라고 부른다.

문수 보현 두 대보살은 경전가운데서 모든 보살의 으뜸으로 나오는데, 이는 법을 표시한 것이다.

첫 번째 보현보살은 여래장을 믿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문수보살은 믿는 마음을 표시한 것이다. 두 번째 보현보살은 육도만행을 일으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문수보살은 육도만행을 일으키는 지혜를 표시한 것이다. 세 번째 보현보살은 번뇌를 벗어나 법계를 증득함을 표시한 것이고 문수보살은 대지혜를 증득함을 표시하여 상호간에 서로 서로가 하나로 융

常法性身中 則為諸佛稱數授記

앞에서 이미 모든 보살과 하나로 짝이 되었다면 근본무명을 타파하고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근본무명을 타파하고 나면 중도와 서로 호응하여 이로부터 항상 법성신 가운데 안주하게 된다.

법성신이란 진여법성으로 청정한 자체이다. 범부중생들은 사대가 임시로 합한 오음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고, 소승은 의생신(意生身)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며, 보살은 무명을 타파한 만큼 중도를 증득하여 법성을 자기의 몸으로 여긴다.

이는 일체법을 자기의 본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법신이라고도 한다. 법성신은 시방세계에 보편하고 총만하여 무량무변하다.

색상은 단정하고 상호로 장엄하여 한량없는 광명과 음성으로 시방세계를 보편하게 제도하는데, 이것을 보살의 법성신이라고 한다.

법성신 자체를 따라서 현실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거기에 방편의 힘까지 더하여 부처님이 팔상성도를 닦아 태어나지 않는 데서 태어난을 나타냈고 열반하지 않은데서 열반의 모습을 나타내어 범부와 동일하게 생사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수행인이 항상 진여법성신 가운데 안주한다면 시방세계 일체제불이 찬탄하고 수기를 내린다. 수행은 부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말하고 기(記)는 깨달음의 과보가 내 마음과 함께 기억함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여래께서 모든 보살 성문 제자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 법화경에서 "아달야!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리니 호를 미륵이라고 하리라"라고 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몬테이프 제작 보급

동행학원은 지상강의에 면재종인 <수습지관좌선법요(현대스지관)>와 호법유사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유식학의 신유식몬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하나의 달이 강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처럼

삼매 안주하면 일체 세계가 일념에 나타나

하였다. 그런 뒤에 대보살의 지위에 깨달아 들어가게 된다.

대보살의 지위란 개시오입(開示悟入)하는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迴向) 십지(十地)인 사십위를 말한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보현 문수 등 모든 보살과 함께 평등하게 짝을 이루게 된다. 보현 문수 두 대보살은 항상 석가모니부처님을 보좌하면서 사바세계에서 교화하므로 이 세계 중생과 가장 인연이 많다.

문수와 보현은 보살의 경지로서 몸을 나타냈지만 그 근본은 석가여래와 두 모습이 없고 차별도 없다.

보현은 인도말로 '필수발타' 또는 '삼만다 발타라'라고 한다. 번뇌를 조복받은 도의 정상에 거처하면서 자체성질이 두루 보편한 것을 '보(普)'라고 말하고 모든 번뇌를 끊은 뒤에 극치의 성인이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현(賢)'이라고 말한다.

인도말로 문수사리를 묘덕(妙德)이라고 번역하며 묘길상(妙吉祥)이라고도 한다. 명료하게 불성을 깨달아 오묘한 덕과 평등하여 법

합되고 포섭된다.

보현보살의 믿는 마음만 있고 문수보살의 지혜가 없다면 믿는 마음은 무명번뇌이며, 문수보살의 지혜만 있고 보현보살의 실천이 없다면 지혜는 사견이 된다. 따라서 신심과 지혜가 진실하고 올바르야만 광명을 타파하고 진실한 마음을 성취할 수 있다.

가령 문수와 보현이 두 모습이 아닌 진실한 지혜가 진실한 거울과 한결같은 이치를 명료하게 통달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비로자나불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인과관계가 돌이면서 돌이 아니라면 문수의 근본지혜와 보현의 행원이 하나의 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수행자가 열불지관을 닦아 열불삼매를 성취한다면 문수 보현 관음 미륵 등 제대보살과 짝이 되어 손을 잡고 함께 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행인의 지위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5) 구경위(究竟位)
구경위(究竟位)는 오위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고 무상정등정각에 깨달아 들어가 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경은 최후의 경지를 말한 것으로 지극(至極)이라는 의미입니다. 수행자가 지극에 이르면 이를 성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경위는 수행자의 최고 경지인 불과위(佛果位)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묘각(妙覺)이라고도 합니다.
'유식삼십송'에서는 구경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此即無漏界 不思議善常
安樂解脫身 大牟尼法身
이는 곧 번뇌가 없는 무루(無漏)의 경계이며 불가사의(不可思議)하고 선(善)하며 항상(恒常)하고 안락(安樂)한 해탈신(解脫身)이며 석가모니(大牟尼)의 법신(法身)이다.
'불과위'는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하여 청정하고 원만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무루(無漏)라고 합니다. 무루는 구경위 단계로 일체의 세간에 대해서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원만하고 밝은 상태를 말합니다.
'계(界)'는 간직한다(藏)는 의미인데, 그곳은 가이없는 희유한 대공덕을 함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사물처럼 따로의 차별상으로 존재함이 없기 때문에 유상(有相)으로 집착하지 못하며, 단멸의 공으로 없지도 않기 때문에 무상(無相)이라 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대적 분별을 떠나 회문이 단절하였기 때문에 불가사의(不可思議)하며, 순수하고 청정하여 그 어떤 오염도 없기 때문에 선(善)이라고 하며, 그 자리는 항구하여 변역함이 없기 때문에 상(常)이라고 합니다.
무릇 차별상이 고요하므로 안락(安樂)이라고 하고, 모든 장애의 속박을 영원히 떠났으므로 해탈신(解脫身)이라 하고, 위없는 적묵법(寂法)을 성취했기 때문에 대모니(大牟尼)라고 합니다. 법어인 '모니'는 번역하면 적묵이라고 합니다.
법(法)이란 법신(法身) 또는 법성신(法性身)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행자가 이르러야 할 최후의 경지인 것입니다.
구경위에선 이 같이 모든 공덕과 지혜를 빠짐없이 갖추어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126회 부산 2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할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공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우리를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인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날 짜 : 2009년 5월 9일(토) 저녁 9시 ~ 2009년 5월 10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흰색법복 · 조끼, 방수포 (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결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2개, 위생비닐장갑,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고리뼈, 차기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아개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장 소 : 부산 금정법당
☞ 지하철 1호선 두산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화전전 50M경우빌딩 4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형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
해운정사
총무원장 헤일
주 지 청 명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
해운정사
총무원장 헤일
주 지 청 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전화 053)621-6237

해 임 공 고
성명 : 최숙경
법명 : 혜정 (승적번호 2008-021)
직위 : 경남교구총무원장
소속 : 대한불교 전국비구니진흥회
주소 : 경남 의령군 유곡면 당동리 50번지
위인에 대하여
경남교구총무원장 직위를 해임합니다
불기 2553년 5월 6일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총무원장